“불교음악 현대화로 포교 매진”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피아니스트 송지해 씨

“음악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포교활동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청소년 포교만이 불교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20여년 전 군산의 작은 사찰법회에서 찬불가를 연주하던 예닐곱 살의 귀여운 소녀가 어느덧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성장했다. 독일 뮌스터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1월 7일 연세대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성황리에 마친 피아니스트 송지해(법명 보리 · 사진) 씨다. 그는 피아니스트로서 음악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야무진 포부를 밝혔다.

“서울과 호남지방의 불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은 교세가 약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스님들도 많이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엄한 스님보다는 친근한 스님으로 좀 더 대중에게 다가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스님을 아버지로 둔 덕에 어려서부터 불교가 익숙하고, 불교가 곧 생활 속에 묻어 있다는 송지해 씨는 기독교 재단서 운영하는 예술고교를 다니면서 보이지 않는 차별도 많이 겪었다고 토로했다. 전공한 음악이 서양음악이고 종교음악이 많이 포함돼 있어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다. 심지어 공연에서까지 제외되는 아픔도 겪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고난도 그의 불심을 꺾진 못했다.



송 씨는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가 주최하는 강습에 참가하면서 지역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껴 강사로도 활동했다. 이후 점차 지방서 음악을 통한 불교포교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불자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불자임을 밝히고 법회에 참석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런 현실은 스님과 어른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는 음악을 통한 포교를 결심하면서 부전공으로 한국무용과 국악도 공부했다. 불교음악 현대화를 위해서다.

“어느 해인가 군산 주한미공군 초청을 받아 부채춤과 삼고무를 공연하면서 ‘원더풀’을 외치는 미국인들을 봤어요. 국악과 서양음악의 조화를 통한 불교음악 현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국악과 피아노를 접목한 찬불가를 만들어 보급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쉽게 다가가기 힘든 불교동요나 어린이 찬불가 등을 클래식 음악에 접목해 직접 작곡할 계획이다. 현재 작곡한 습작들을 다듬어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의 강사와 음악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역에도 어린이 포교를 담당할 조직을 구성하고, 동양음악과 서양음악을 접목한 퓨전음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자신의 역량이 더욱 무르익으면 불교 전통의식인 영산작법과 서양음악인 피아노의 접목도 시도할 계획이다.

“불자가 부족하다거나 불교인재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을 쏟지 않은 불교계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불교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불교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꾸준하게 무대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송 씨. 음악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젊은 불자의 포부에 지역 불교계가 거는 기대가 크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초부터 봉축 박차 가하는 광주불교계

1월 3일, 광주지역 연합성도재일법회 봉행
봉축일정 발표, 빛고을불자대상 시상도



광주불교연합회를 비롯한 광주지역 단체들이 1월 3일 성도재일 연합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전에 삼귀의를 올리고 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를 비롯한 광주지역 불교단체는 1월 3일 KT광주센터 3층 대강당에서 ‘불기2561년 부처님 성도재일 연합기념법회’를 개최하고, 성도재일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진행하며 2016년 빛고을불자대상을 선정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을 비롯해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 동원사 회주 지각 스님 등 회원사찰 스님 50여 명과 이범식 신도회장, 윤장현 광주시장, 박주선 국회의원, 천정배 국회의원, 김성환 동구청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운집했다.

불교유치원인 연화유치원생들의 무용으로 시작된 1부 행사는 불교의례, 축사, 인사말, 빛고을불자대상 시상, 장학금 전달 등이 이어졌다. 또 봉축행사를 안내하는 영상 상영과 성도재일을 기념하는 예불, 법문(현응 스님), 정근, 사홍서원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현응 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부처님이 이루셨다는 도의 내용은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본다. 보통 밝음은 지혜, 따뜻함은 자비라고 말하지만 큰 밝음과 큰 따뜻함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이루셨다는 도의 핵심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성도재일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나가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은 축사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은 절대적 가치로 평등하다는 것이며,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은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근본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만물만생을 사랑하셨던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바르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귀한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2016년 빛고을불자대상 시상이었다. 대상자로는 김영섭 자비신행회 사무처장이 선정됐다. 연광 스님은 “김영섭 씨는 광주지역에서 25년간 활동하면서 불교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불교발전에 기여했으며, 특히 지난해 사찰음식체험관을 만들어 청년식당, 어린이식당 등을 기획해 불교포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수상자 선정이유를 설명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순금으로 만든 불교메달이 수여됐다.

법회에서는 2017년 봉축행사 일정도 함께 발표됐다. 4월 14일 봉축탑 점등식에 이어 전통등전시회(4/14~5/8), 본 행사(4/29, 어울림한마당 · 관등법회 · 연등행렬 · 대동한마당)가 차례로 열린다. 행사 준비를 위해 전통등 만들기 강습회(1/13~15), 율동 강습회(1/21)도 진행돼 신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한편 행사장에는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사진 전시회와 지산동 연화사 차봉사팀의 전통차 시음회가 열려 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빛고을불자대상을 선정해 올해 3회째 시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고창군에 성금 1000만원 기탁

관내 소외계층 복지 위해

조계종 24교구 선운사(주지 경우)가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고창군에 기탁했다. 선운사 총무국장 심학 스님을 비롯해 교무국장 자운 스님 · 재무국장 수찬 스님 · 연수국장 원정 스님 등 국장단 스님들은 1월 4일 고창군청을 방문해 박우정 고창군수에게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선운사 국장단 스님들이 고창군청을 방문해 박우정 고창군수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모습.

심학 스님은 “정유년 새해를 맞아 선운사 대중스님들의 원력으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한 금액이겠지만 자비나눔이 사회적으로 더욱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밝아오는 아침에 닭이 힘차게 소리 내듯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선운사에서 기탁한 성금을 관내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선운사는 선운사복지재단을 통해 고창의 대표적인 복지시설인 고창사회복지관과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한편 선운사는 이에 앞서 구랍 30일 고창 석정웰파크병원(원장 김정하)과 스님 및 불자들의 종합건강검진 의료서비스 혜택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선운사 본말사 대중스님과 불자들은 석정웰파크병원의 암 면역치료 등 특화된 전문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상담 등 봉사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이번 협약으로 스님과 불자들이 진료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도 함께 힘을 모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하 원장은 “선운사 스님과 불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교도소 여사 송년법회 봉행

혜인정사 진송 스님, 대구 전주 오가며 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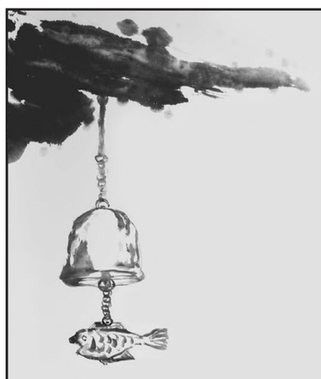
대구 · 전주를 오가며 전주교도소 여성재소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대구 혜인정사 주지 진송 스님이 전주교도소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진송 스님은 구랍 29일 전주교도소 여사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하고, 참회의 삶을 살고 있는 여성재소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물했다.

진송 스님은 법문을 통해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라며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하심 하는 공부를 통해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정진해야 한다. 지난 세월 후회만 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교도소를 수행처로 삼아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여성재소자는 “먼 거리를 마다않고 달려오는 스님의 정성에 감동했다”며 “재소자들은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진송 스님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서울 금강불교대학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안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 과 목	요일	자 격	시 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 원	수강료
불교학과	초급과정	1년	불교학개론, 불교입문 천태종사, 심리상담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9:00 ~ 20:20 · 2교시 : 20:40 ~ 22:00	· 입학원서1부 (5,000원) · 반명함판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1년 20만원
	중급과정	1년	금강경, 불교의 신해 법화경, 대승불교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교법사과		2년	육묘법문, 비교종교론 천태소지관, 기신론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지원서 1부 · 반명함판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학기당 20만원

원서접수

원 서 교 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23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일 산 화성사 : 031.905.2912 군 포 상락사 : 031.392.0924	• 접수 : 2016년 11월 11일(금)~ 2017년 2월 17일(금) 18시까지 • 면접 : 2017년 2월 19일(일) 오후 3시 • 장소 : 관문사 2층 면접실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 통보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3460-5323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T에서 하차)

서 울 金 剛 佛 敎 大 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제3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 6개월 과정

- 교육과정 -

불교의식 범음범패 6개월 과정

• 도량석, 종송, 향수헤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범음범패)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6개월 수련후 수료증, 1년과정 졸업후 이수증과 법사증 수여(숙식제공 가능)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개강일시 : 2017. 2. 28.(화)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
→ 준 비 물 : 목탁, 요령
→ 문 의 : 포항 보경사 종무소 054-262-1117
교육원 강주스님 010-9361-5566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